

# 우리나라 토종닭의 이야기

## 1. 우리나라 토종닭의 기원

우리나라에서 닭은 언제부터 사육되었을까?

우리나라에 닭이 전래된 경로나 사육기원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문헌 기록에 신라 시조인 혁거세 왕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설과 김알지가 탄생할 때 숲속에서 닭이 울었다고 하여 이 숲을 계림(鷄林)으로 부른 점으로 보아 당시 닭이 사육되고 있었다고 추측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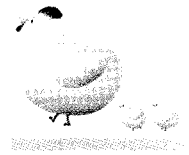
3세기 중엽의 삼국지 한전(韓傳)에는 「출세미계 기미장5척여(出細美鷄 其尾長五尺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척관법으로 1척은 우리나라에서는 30.3cm를 말하나 중국의 고대 및 한나라에서는 1척이 18~23cm 정도를 나타냈으므로 꼬리가 5척이라는 것은 그 당시 대략 100cm 긴 꼬리를 가진 아름다운 닭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해동역사(海東譯史)>나 조선시대에 편찬된 <금양잡록(衿陽雜錄)>과 <농가집성(農家集成)> 등에 한반도에 닭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19세기 중엽에 저술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에도 닭에 관한 기록이 있다.

닭의 발음에 관한 유래를 살펴 볼 때, 홍이섭(조선과학사)은 「조선에서는 닭을 부를 때 “구구(Kukku)”라 하고 명칭은 “닭



김학규 농학박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Talk)”이라고 하는 것과 닭을 고대 인도의 파리어(巴黎語)로 구구(Kukku)라고 하는 것을 관련시켜 “닭”이라는 호칭이 인도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해 하되, 닭은 동남아시아 원산으로 그 방면에서 유입되었다”하여 닭의 유입설을 동남아에서 찾고 있다.

또한 최남선(1942)에 의하면, 「인도인은 조선(朝鮮)을 “구구다(矩矩陀)”라 불렀다고 하며 “구구다”를 번역하여 “계귀(鷄貴)”라고 하였다」고 한다. 즉, “구구다”, “계귀”는 인도 사람의 한국에 대한 호칭으로 닭의 어원으로 보아서는 남방전래설을 유추해 볼 수도 있다.

1973년 발굴된 신라시대의 고분인 경주의 천마총에서 처음으로 계란이 출토된 것을 미루어 보아 서기 400~500년경 이전부터 닭이 확실하게 사육되어 왔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왕릉에 부장품으로 매장될 만큼 귀하게 여겼던 것으로 짐작된다.

출토된 완형란은 대·소 4개인데, 대란의 크기는 우리나라 재래종 계란과 꿩알의 중간

정도이고 소란은 그 크기가 꿩알과 같은데 그 실측치는 <표 1>과 같다.

천마총 출토란의 역사적 고증으로는 서기 500년경으로 신라 소지왕(471~499) 또는 지증왕(500~513)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BC 1400년에 이미 양계를 시작했다고 하며, 맹자에도 양계·양돈을 하여 노인을 봉양하라고 권고한 것을 보면 맹자 때에는 중국에서 널리 양축으로 사육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지증왕 때는 전기한 중국의 양계 기원에 비하여 약 2000년, 맹자에 비하여 약 1000년 정도 뒤떨어진다. 양계에 관한 출토품이 아니더라도 이런 시대에 한반도에서 양계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2. 토종닭의 최근 변천과정

1900년 이전까지 사육하던 닭은 모두 재래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전국에 걸쳐

<표 1> 천마총 출토란의 외모형태

| 구분    | 천마총출토   |        | 대조구     |             |
|-------|---------|--------|---------|-------------|
|       | 큰알      | 작은알    | 토종닭알    | 꿩알          |
| 장경    | 48.2mm  | 44.6mm | 53.6mm  | 40~44.5mm   |
| 단경    | 36.5mm  | 33.8mm | 39.2mm  | 32.5~35.2mm |
| 중량    | 33.8g   | 24.7g  | 44.7g   |             |
| 난각 두께 | 0.943mm |        | 0.324mm |             |

※천마총조사보고서



널리 사육되고 있었으나 자급자족하던 원시적인 양계형태에 지나지 않았다.

1900년대 초 일본의 강점이 시작되면서 일본으로부터 능력이 좋은 개량종들이 도입되어 양계업이 시작되면서 우리민족의 역사와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하며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온 재래닭은 산란수가 적고 성장이 더디다는 이유로 차츰 수적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후 해방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 재래종 닭은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였고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의 원조기관으로부터 외국 개량종이 일시에 대량으로 도입됨으로써 순수한 토종재래닭은 점차 자취를 감추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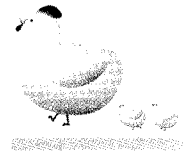
더구나 1960년대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에서 개량된 상업용 종계가 수입되면서 재래닭은 물론 국내의 닭 개량사업도 위축되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더불어 축산물 수요가 증가되면서 닭고기와

계란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생산성이 높고 수익성이 좋은 개량종 닭이 대량으로 사육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계산업은 규모화 또는 전업화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와는 상대적으로 재래닭의 사육감소는 더욱 가속화되어 멸종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국내 양계산업의 발전 뒤에는 우리의 토종이 수난을 당하는 아픔이 동반되었다.

근래에 오면서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축산물 소비에 있어서도 기호에 맞고 양보다는 질을 찾는 성향이 높아지면서 토종닭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토종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증가되는 수요를 위해 사육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수요증가와 함께 고유가축의 유지보존에 대한 의미가 강조되면서 토종닭 품종의 순수성 확립과 토종닭을 이용한 실용화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가 추진되게 되었다.



“

근래에 오면서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축산물 소비에 있어서도 기호에 맞고 양보다는 질을 찾는 성향이 높아지면서 토종닭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토종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증가되는 수요를 위해 사육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그러므로 토종닭이 생산하는 쫄깃쫄깃하고 담백한 특유의 고기 맛을 선호하는 소비층을 확보하고, 나아가 토종닭을 활용한 닭고기 품질의 고급화를 이루어 간다면 발전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재래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크다고 할 수 없지만 대규모로 사육되고 있는 수입 개량종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에는 손색이 없으며 고유 유전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 3. 토종닭의 특징

토종닭은 몸이 가볍고 성질이 활달하며, 날개가 강하여 나는 힘이 풍부할 뿐 아니라 알을 품는 성질이 강하여 부화된 병아리를 잘 기른다.

성질이 조금 급하고 공격적이며 알 품는 중에 있는 어미닭은 사납다.

전체적인 체형은 장방형으로 날씬한 모양이며, 벗은 적색으로 홀벳(單冠)이고 목밑의 고기수염이 긴 편이다. 부리는 단단하게 적당히 굵어 있고 목에는 깃털이 많으나, 정강이에는 털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 발가락은 4개이다. 정강이 색깔은 흑색, 회흑색, 녹흑색, 황색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계종에 따라 다르다.

조선시대 말엽의 기록으로는 수탉의 몸무게가 1.2kg, 암탉의 몸무게는 0.8kg이라 하였는데 이후 1920년대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수탉이 1.5~1.9kg, 암탉은 1.2~1.6kg 정도가 된다 하였다.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다 자란 닭의 키는 수컷이 28cm, 암컷이 23cm 정도이고, 몸길이는 수컷이 26cm, 암컷이 22cm 내외이다. 정강이길이는 수컷이 11cm, 암컷이 9cm 정도로서, 다 자란 몸무게는 수컷이 2.4kg, 암컷이 1.9kg 가량 된다. 